

## 사도 바울의 본

2/26 월요일

아침의 누림**딤편 1:16**

16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빌 1:21**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3:3**

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행 26:16, 19**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낸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엢 4:20-21**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딤편 4:12**

12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

주님은 사도 바울을 폭풍이 이는 바다 위에서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주인으로만 아니라(행 27:24), 생명의 보증인과 위로자로 삼으셨다(행 27:22, 25). ... 사도가 오랫동안 감금된 채 순탄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주님은 사도를 그분의 초월 안에 있게 하시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닌 이러한 삶은 완전히 위엄 있는 삶이었으며, 수년 전에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닮은 삶이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 사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복음서들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한 하나님-사람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증인이었다! 바울은 항해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살며 확대했다(빌 1:20-21). (행 28:9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은 처음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위임을 주시고 그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셨다. ... 사역자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증인은 증언을 위한 것이다. 사역은 주로 일, 즉 그 사역자가 하는 일과 관계되고, 증언은 인격, 즉 그 증인의 존재와 관계된다.

사도행전 26 장 16 절에서 주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낸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절에서 사용된 ‘내가 나를 본 일(the things in which you have seen me)’과

‘내가 너에게 장차 보여 줄 일(the things in which I will appear to you)’이라는 표현을 주의하여 살펴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일과 장차 그에게 계시하실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바울이 전달하려는 의미가 맞기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위임을 소개하는 방식은 이와는 달랐다. 이보다 사도행전 26 장 16 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본 일과 장차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26 장 16 절은 바울이 무언가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 계시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울은 어떤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무언가를 계시하실 때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가 주님을 본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고자 했던 이유이다. 바울은 그가 본 모든 이상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장차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고자 했다. 여기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네가 앞으로 받을 모든 이상과 계시에서 내가 네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이상과 계시만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본 이상과 계시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신학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신학은 배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다. 신학을 배우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어떤 일들을 계시하셨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주님은 그분께서 바울에게 더 많은 일들을 계시하시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주님 자신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셨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 것은 단지 일들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타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였다.

주님께 받은 모든 빛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빛 비춤이나 이상이나 계시 안에서 ...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한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에 관한 지식만을 얻는다면, 그러한 지식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계시된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8, 578-58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6, 68;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2/27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5:14-15**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5:17, 20**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롬 7:6**

6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낱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롬 8:4**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 5:24-25**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였다. 대사는 가장 높은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자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그리스도께 주셨다 (마 28:18).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왕의 왕과 모든 주인의 주님으로 세우셨다(딤후 6:15, 계 17:14). 오늘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시며 가장 높은 권위자이다. 이 최고의 권위자께서는 이 땅 위에서 그분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몇몇 대사가 필요하시다. 주님의 사역은 다만 설교자나 교사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대표하는, 하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되는 문제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 년, 2 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6 장, 253-25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대사였던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자신의 모든 어둠함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고후 5:4). ...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 우리의 모든 어둠함과 ... 소유한 모든 것은 죽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둠함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하고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것을 일해 넣으셨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 결국 ...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성한 생명에게 삼켜질 것이다(고후 5:4).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힘을 다해 수고할 수밖에 없다(고후 5:9).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자 한다면,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우리가 이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한 뜻만을 품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이 생명에 의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어야 한다.

바울은 주님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이었다(고후 5:15).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도록 장비되게 하는 또 다른 항목은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휩쓸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5 장 14 절과 15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과 같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밀어내어 그리스도를 향해 살게 한다고 말한다. 강권을 받는 것은 조류에 휩쓸려 가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류의 물살만큼 강해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휩쓸어 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잠길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므로 저는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야 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매일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셔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를 기도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해 주십시오. 오, 주님! 홍수 같은 당신의 사랑에 잠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가운데 젊은 성도들은 그들이 오늘 주님을 사랑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들이 선택하고 취할 수 있는 여러 방향의 길들이 남아 있다. 그들에게 여러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홍수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면 모든 선택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사람은 사람들을 육체에 따라 알지 않고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안다. 여러분은 육체에 따라 밖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어떤 일을 고려하거나 사람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2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6장, 254-25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2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6장;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14, 25, 29

2/28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살전 2:1-3

1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2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3 우리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 살전 1:5-6

5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6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 고후 4:12

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 행 20:19, 35

19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35 내가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

바울은 …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생활에 관하여 강하게 증언한다. 그는 사도들이 온 것과 그들 가운데서 사도들이 생활한 방식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 믿는 이들에게 합당한 생활의 본을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장로들과 인도하는 이들이 바울의 예를 통해 우리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기바란다. 각 지방의 교회 안에는 반드시 다른 이들이 따를 수 있는 몇몇의 본, 곧 모형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믿는 이들과 어린 믿는 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들을 돌보는 합당한 방법은 그들에게 본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본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물을 주고, 공급하고, 자양분을 주고, 그들을 소중히 돌보는 방법이다. 이것이 돌보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체험에 무언가 부족이 있다고 느낀다면,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을 알려 주라. 예를 들어, 구약에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이 있고, 신약에는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 등이 있다. 우리는 어린 믿는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삶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 125-126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자녀를 돌보는 것은 구십 퍼센트가 먹이는 문제이며, 십 퍼센트가 가르치는 문제이다. 이것이 또한 교회 안에서 새로운 믿는 이들을 돌볼 때 우리의 실행이 되어야 한다. … 먹이는

것은 성경이나 교회 역사로부터 본들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 세기에 걸쳐 존재했던 성도들의 전기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자양분을 공급받고 일종의 양육을 체험한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최상의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삶을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이것은 바울의 생활 방식이 그의 영적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온 것과 그의 전파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식과 그의 생활 방식을 강조했던 이유였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믿는 이들에게로 들어간 것을 거듭 강조한다(살전 1:5, 9,2:1).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안으로 복음을 주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도들의 생활 방식은 그들이 한 말뿐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도 포함한다. ... 사도들은 헛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가에 대한 본이었다. 많은 이들이 사도들을 통해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 달 안에 교회가 일으켜졌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들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심한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려 담대함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담대했다. ... 고난과 박해가 그들을 패배시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2 절에 따르면, 그들은 많은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전파하는 동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박해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분투하며 하나님의 담대함 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3 절에서 ... '속임수'는 목표를, '더러움'은 동기를, '간교함'은 수단을 가리킨다. 세 가지는 모두 간교하게 사람을 속이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다. '권유'라는 말은 말함과 전파와 가르침과 지시와 간청을 포함한다. ... 사도들은 탐욕을 부리지 않았고, 누군가에게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전적으로 순수하고 신실한 것이었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 126-127 쪽, 메시지 12, 112-1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금세기 위대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 니 전기, 개정판, 11 장;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상), 개정판, 10, 33 장

## 2/29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살전 2:4-5

4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5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 고후 1:12

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 고후 6:6

6 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 시 26:2

2 오, 여호와님! 저를 살피시고 단련하시며 저의 속부분과 마음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 시 139:23-24

23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24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

데살로니가전서 2 장 4 절에서 '인정받다'라는 말은 시험받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인정하시기 전에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 인정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셨다. 하나님은 주의 깊게 이 일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아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험은 주로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르고 정직하며 신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받을 때 우리는 자신이 실지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 안에 정직과 신실함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 후에야 우리는 인정받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11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내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에 대해 자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시험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사용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후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하심에서 나온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위임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위임하심은 우리의 인정받음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 오직 우리를 시험하신 후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때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위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셨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이었다. 사도들의 말함은 하나님의 위임에 근거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 말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4 절에서 우리는 자신이 먼저 인정받은 후에야 무언가가 위임된다는 것을 본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 말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과 인정하심과 위임하심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무언가가 생길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5 절에서 ‘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가면’ 또는 ‘덮개’를 의미한다.

탐욕의 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거나 말씀에 불순물을 섞는 것이다(고후 2:17, 4:2). 이것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경건을 가장하는 것이다(딤후 6:5, 딤후 1:11, 벧후 2:3).

데살로니가전서 2 장 5 절에 따르면, 사도들은 한 번도 아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아침을 피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결코 아침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절에서 바울은 또한 사도들이 탐욕의 탈 또는 덮개를 쓴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감추어진 악한 동기가 없었다. 사도들에게 어떤 탈이나 가장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거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 어떤 것에 불순물을 섞는 것은 보다 질이 낮은 물질을 혼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에다 구리를 혼합하거나 술에다 물을 혼합한 다음 그것을 순수한 것처럼 파는 것이다.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탈을 쓰고 전파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5 절을 통해 우리는 아침하는 것과 탐욕의 탈을 쓰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스도인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더러운 것들에 어떤 입지도 내주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종 가운데 누구도 아침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써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아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114-11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전집, 개정판, 44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4), 98, 104 장

**3/1 금요일**

**아침의 누림**

**살전 2:6-7**

6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7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같이 하였습니다.

**고후 4:5**

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고전 9:12**

12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런 권리를 나누어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 20:27-28**

27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28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갈 4:19**

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사 66:13

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나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일꾼에게 실지적인 시험이다(비교 살전 2:6). 많은 사람이 이 문제로 사로잡히고 손상되었다.

‘존중을 받을 수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권위를 주장할 수도’를 의미한다. ... 그리스도인의 일에서 권위나 존엄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일에 손상을 가져온다. 주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존엄을 버리셨고 (요 13:4-5),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전 9:12).

천사장의 타락은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이었다. ... 비록 그는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인도하는 천사였지만 여전히 영광을 구했다. ... 신약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탄의 추종자이다. 영광을 구하는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탄이 펼쳐 놓은 덫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116-11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우리의 유용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 자기를 위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항상 사람의 유용성을 죽인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특히 청년들은 주님의 일 안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6 절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존엄한 위치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킨다. ... 그들은 자신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노예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들은 다만 자신들이 믿는 이들을 섬기는 형제들을 명심했다.

믿는 이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이들도 인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사도들을 고관들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지방의 교회들 안에는 고관이 없다. 우리는 고관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노예들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위나 직함이 없을 때 어떤 일도 떠맡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지자, 가령 그들이 봉사하는 그룹에 포함되자 즉시 그들은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남편이 장로인 자매는 장로의 아내라는 이유로 권위를 취해서는 안 된다. ... 그녀는 단지 교회를 섬기는 작은 자매이다. 더 나아가 그녀의 남편은 고관이 아니다. 그는 노예이다. 장로인 그는 노예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살전 2:6)이라는 바울의 말은 심지어 초기에도 권위를 취하려는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사도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과 권위를 주장하려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본이다.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치명적인 병원균, 곧 지위를 차지하려는 세균을 죽일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7 절에서 ...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트로포스(trophos)’로서 유모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가리킨다(비교 갈 4:19). 보살피는 것은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며, 또한 단지 양육만이 아니라, 더욱 부드럽게 돌보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형제였지만 스스로를 젖을 먹이는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에게는 지위나 존엄이나 권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 젖을 먹이는 어머니에게 무슨 지위가 있겠는가? 그녀에게 무슨 서열이나 존엄이나 권위가 있겠는가? 그녀의 권위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 즉 그들을 부드럽게 돌보는 것에 있다. 바울은 자신을 단지 섬기는 이만이 아니라 보살피는 이로 여겼다. 그는 결코 믿는 이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또한 바울은 그저 그들을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소중히 보살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돌봄은 부드러움으로 가득했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117-11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7, 10 장*

3/2 토요일

### 아침의 누림

#### 살전 2:8, 11-12

8 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1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12**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후 12:15

**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아야 되겠습니까?

#### 빌 2:17

**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 딤후 4:6-8

**6**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2 장 8 절에서 ‘열렬히 사랑하였기에’라는 말은 ‘넘치는 애정으로 좋아하였기에’, ‘넘치는 애정으로 그리워하였기에’를 의미하며, 이것은 마치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신이 양육하고 보살피는 아이를 넘치는 애정으로 관심하는 것과 같다. 사도들은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었다.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는 것(살전 2:3-6, 10 절)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정도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7-9, 11 절)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안에 담긴 구원을 사람들 안으로 주입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 장 8 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에 관하여 말했는데, 이 말은 그가 고린도후서 12 장에서 믿는 이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도 다 소비하는 것에 관하여 했던 말과 비교할 수 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이 소유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바로 그의 존재를 소비하기 원했다. ... 이것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신을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119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 장 11 절에서 사도는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어떻게 처신했는가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매우 강조했다(살전 1:5). 왜냐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됴됨이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으로 이끌렸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믿는 이들을 자신들의 자녀들같이 보살피면서 자신들을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여겼고, 그들에게 권유하면서 자신들을 아버지로 여겼다(살전 2:11).

하나님의 부름(살전 2:12)은 그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그분의 선택에 뒤따르는 것이다(살전 1:4). 믿는 이들은 전에는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이었고(살전 1:9) 사탄의 왕국 안에 있었지만(마 12:26),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 부름받고 믿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신성한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역이자 하나님을 누리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왕국과 함께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살전 2:12)은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끌리는 것에 관련된다. 여기에 있는 사상은 ... 상당히 깊다. ...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함, 즉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 수 있는 행함을 가져야 하는 것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 이것은 바울이 어린 믿는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에 포함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1 절부터 12 절까지는 새로운 믿는 이들을 위한 본으로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준다. ... 우리는 동기, 특히 돈 문제에 대해 순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단락의 절들에 기록된 많은 내용이 돈이나 탐욕이나 탐심과 관련된다. 만일 우리가 돈에 대해 순수하지 않고, 돈과 관련하여 진실하거나 정직하거나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거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이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동기로 인해 우리는 아침하는 말을 하고 탐욕의 탈을 쓰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엄중한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어린 성도들에게 합당한 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탐욕은 처리되어야 하고 돈 문제는 반드시 우리 발아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아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결코 어떤 탈도 쓰지 말아야 하며, 결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 때 다른 믿는 이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본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돌볼 때, 우리는 어머니처럼 그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아버지처럼 그들을 권유하여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해야 한다. ... 오직 하나님을 사는 생활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 이 같은 행함은 우리를 왕국 안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120-12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13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

**3/3 주일**

아침의 누림

빌 2:6-11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10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찬송: 499 (英) 오 놀라운 참 생명과 평안 (中:378)**

1 어떤 생명 어떤 평안인가! 그리-스-도 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구원 이젠 내가 살-지-않-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네  
 오 지금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사-신다네.  
 2 어떤 기쁨 어떤 안식인가! 그리-스-도 형-상 이뤄  
 그의 생명 그-의 본성 내 전-체에- 채워지네  
 내 이전 모든- 것- 끝-나-- 지금--은주-- 내모-든것돼  
 내 모든 것 다 끝났네 주님만이 내- 성분 돼.

3 어떤 사상 어떤 자랑인가! 그리-스-도만-확대해  
 어떤 때나 죽-든 살든 부끄-러움- 당하잖고  
 어떠한 환경- 만-나-든-지 나 그--리스--도 적--용해  
 어떤 환경 만나든지 그리스도 증-언하네.  
 4 어떤 상급 어떤 유익인가! 그리-스-도 내-목표니  
 내 보배 내 갈-망 오직 모든 것 포함한 그리스도  
 내 소망과 나-의- 영-광-- 내 면--류관-- 그리--스도  
 참 귀하고 참 소중한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1:4-9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 2

**Level 2—Hebrews Topical Stud**  
 Crucial Point: The Son in God’s Eternal Economy  
 Scripture: Heb. 1:1-14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 3, 67  
 Supplemental Reading: *The Mysteries in God’s New Testament Economy*, ch. 1; *The Divine Dispensing of the Divine Trinity*, ch. 7  
 Questions:  
 1. Describe the Son presented in Hebrews 1, in light of God's eternal economy.  
 2.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Son being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3. What is a scepter an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scepter of the Son?  
 4. In Heb. 1:12 and 13:8, what does it mean that the Son Jesus Christ is "the same?"